

# 중앙선 안동~영천구간 복선화 확정

경북도 기재부 재정사업 심의 통과 사업비 4조443억→4조1984억 이철우 지사 “사업 조기완료 집중”



중앙선 안동~영천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사업 가운데 단선전철로 설계된 안동~영천구간을 복선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4조443억 원에서 4조1984억 원으로 1541억 원 늘렸다.

그동안 경북도는 김형동, 이만희, 김희국 국회의원과 노선경유 시군(안동시, 의성군, 군위군, 영천시)과 공동으로 이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당위성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설득해 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고 1년여 만에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이 구간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 중 유일

하게 단선 전철로 공사 중이었다. 경북도는 이 구간만 단선으로 추진되면 병목현상에 따른 열차 안전운행 및 운영효율이 저하되고, 앞으로 별도 복선 추진 때 운행선 인접 공사 및 기존 단선 시설물 철거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이 구간 복선화 사업이 추진되면 열차의 교행이 원활해져 안전한 열차운행 및 운행시간 단축이 이뤄지고 특히 통합신공항을 잇는 광역철도망은 물론 다른 노선과의 연계운행으로 수도권과 내륙 지역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통합신공항 추진 등 현재여건을 고려한다면 중앙선 안동~영천 복선화는 사필귀정”이라며 “대구·경북의 다양한 거점을 연결하는 메가시티 광역철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사업 조기 완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metroseoul.co.kr

# 경북도, 내년 비점오염 저감 116억 투입

포항·안동·구미 등서 사업

경북도가 인공습지 조성 등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

비점오염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경북도는 28일, 내년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으로 여과시설, 인공습지, 수로 정비 등에 116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토지개발이 가속되면서 불투수층 면적이 늘어나고, 부유물질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등의 오

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초기 우수를 정화시킨 후 하천에 방류하고, 농경지와 축산 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은 인공습지로 유입·처리해 방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안동 송아천, 구미 이계천, 구미 광평천, 영주 내성천, 영천 창구 및 문외지구, 상주 태봉리(인공습지), 청도 산서지구, 영양 계리·문암·칠성지구, 봉화 내성천 등이다.

/경북=김태우 기자

# 전남도, 해외 여행객 유치 홍보비 지원

15개 여행사에 500만원~1000만원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글로벌 홍보강화를 위해 국가 간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체결 예정 국가를 중심으로 전남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에 해외 홍보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외 홍보비 지원은 전남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에 사전 공고 해 15개 여행사를 선정 후 진행한다. 전남 여행상품 기획과 운영을 위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싱가포르, 대만, 일본, 미국 등 여행

안전권역 체결 예상국을 대상으로 전남 여행상품을 기획해 해외 홍보매체, SNS·유튜브 등으로 전남 관광상품을 홍보한다.

미국 한인을 대상으로 고국을 방문하는 ‘전남 명품일주’ 상품과 여행안전권역 체결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판매하는 ‘외국인 FUSO’ 상품은 2022년 상반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유미자 전남도관광과장은 “전남 관광지 및 관광상품을 해외 언론 등에 선제적으로 홍보해 안전여행의 최적지인 청정 전남의 가치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광산구 ‘휴블런스’, 국민정책디자인 대상

광주시 통합 의료·돌봄 기틀 마련 서비스 보완·개선... 내년 확대 시행



광주 광산구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건강약자 중 가족 돌봄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추진한 원스톱(Onestop) 병원동행 서비스 ‘휴블런스’가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뉴스

광주시 광산구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건강약자 중 가족 돌봄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추진한 원스톱(Onestop) 병원동행 서비스 ‘휴블런스’가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 대회는 국민·공무원·서비스 디자인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이 기획하고 실행한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공공정책 과제 중 가장 뛰어난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최고의 우수 공공정책으로 선정된 광산구의 ‘휴블런스’는 ‘휴먼(Human·사람)’과 ‘앰블런스(Ambulance)’의 합성어다.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지만, 가족 돌봄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원스톱 병원동행’ 서비스다.

앞서 지난 4월부터 광산구는 국민정책디자인단 25명과 함께 30여 차례 아

이디어 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영구임대아파트 50여 명에게 ‘휴블런스’ 서비스를 제공했다.

간호 전문 경력을 가진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동부터 접수, 진료, 검사, 약국 처방, 귀가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혼자 병원을 가기 힘들었던 시민은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광산시민수당을 활용해 경력 단절

인력을 동행 매니저를 양성하고, 서비스에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또 광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산구 의사회 등 다양한 지역 기관·단체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통합 의료·돌봄의 기틀을 다진 점도 호평을 받았다.

광산구는 올해 시범 운영의 성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보완·개선에 내년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특히 전국 각지로 확대·적용할 수 있는 표준 서비스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 영양군, 고추 농가 소득증대 팔 걷어

김장대축제장 행사 진행

영양군 종합민원과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26일 농협은행 경북 지역본부 김장대축제장 행사를 가졌다.

군은 고추값 하락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농협은행 경북지역본부가 주관하는 김장대축제장에서 김장김치의 주재료

이며 빛깔·맛·영양이 뛰어나 ‘전국으

뜸농산물’ 한마당 행사에서 채소류 부문 대상을 수상한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방문객 및 부스운영자, 인근 도청공무원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와 고추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희망을 주기 위해 각 부서가 홍보·관측행사를 하고 있다”며, “최근 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이 화두인 만큼 앞으로 영양군 공직자들도 농가 소득증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 광주 북구 송창주 주무관, 지방행정 달인 선정

“구민 행복 위해 더욱 매진”

광주시 자치구 중 사상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행정 달인’이 나왔다.

광주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1회 지방행정의 달인’ 공모에서 송창주 주무관(사진)이 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매년 ‘지방행정 달인’을 선정하고 있다.

광주에선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자치구에서 달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주무관은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고, 해답 또한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첨단 국가산업단지과본촌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1300여 개 기업을 지원, 산업단지 활성화에 힘썼다.

송 주무관은 “지성이면 사람이 감동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각오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했을 뿐이다”며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북구청 동료 1700여 명과 함께 구민 행복, 북구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 “난감하네, 아리랑 광주” 무대 보러오세요”

광주문화예술회관 매주 국악 상설공연

2021년의 마지막 달 광주지역에서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12월동안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5시 광주 공연마루에서 다채로운 국악 상설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12월 첫번째 공연은 1일 열쑤가비나리협주곡, 신애훈반 설장구, 민요연

곡, 사물놀이 등이 결합된 ‘인(人)수(水)화(火)풍(風)’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창작국악단 도드리가 2일 관객을 만난다. ‘명인·명창과 함께하는 도드리 송년음악회’ 주제로 펼쳐지는 공연은 국악경연프로그램 ‘조선관스타’ 우승자인 김산옥이 출연해 사회와 함께 ‘난감하네, 아리랑 광주’ 무대를 선보인다.

3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인 유영애 명창과 김영길 명인, 채향순

명무가 출연해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를 공연하며 판소리 흥보가 중’가난타령’을 들려준다.

4일에는 ‘명인과 함께하는 가야금의 향연’을 주제로 성애순 명인과 문명자 명창이 출연해 실내악과 국악가요, 가야금과 창작무,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등을 연주한다.

이 밖에도 12월 동안 시립예술단과 지역 예술단체가 ‘미디어아트와 전통예술이 함께하는 환벽당 이야기’ 등 국악을 주제로 특색있는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광주=김태수 기자